



국내유가 인상

휘발유·등유 각 28% 씩

- 동력자원부 -

정부는 지난 11월 25일 휘발유와 등유의 가격을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각각 28%씩 인상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보통·무연)는 종전 1당 3백73원에서 4백77원으로, 등유는 1백86원에서 2백38원으로 각각 올랐다.

정부는 그러나 수출등 국제경쟁력과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경유, 중유, B-C油, 가스등 수송 및 산업용 유류가격은 연내에는 인상하지 않고 내년초에

전체적인 에너지가격구조개편때 함께 조정할 방침이다.

동력자원부는 이번 유가인상배정으로 「다른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불합리한 가격구조 때문에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등유와 휘발유가격을 올림으로써 석유과소비를 우선적으로 억제키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동자부가 발표한 유가구조조정 내용이다.

〈국내유가구조 조정 (요약)〉

- 국내유가의 전면적인 인상은 페르시아만사태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연내에 하지 않는다.
- 다만 비현실적인 일부 유종의 가격만 '90. 11. 25일 영시부터 조정한다.
- 등유와 경유의 가격차를 확대하기 위하여 등유가격을 소비자가격 기준 28% 인상한다.
 - 사우디아라비아가 등유수출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등유의 공급부족이 발생하였음.
 - 따라서 우리의 월동기 수입수요 13백만배럴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반면 국내 등유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금년 1~9월의 등유 판매 실적은 작년 동기 대비 109% 증가 하였음.
 - 등유와 경유의 가격차를 현존의 리터당 4원(등유 186원, 경유 182원)에서 56원(등유 238원, 경유 182원)으로 확대하여 등유소비를 억제함.
- 휘발유 가격을 소비자가격 기준 28% 인상한다.
 -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휘발유는 타 유종과의 가격격차를 계속 확대유지하여야 함.
 - 휘발유의 국내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금년 1~9월의 휘발유 판매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였음.
- 경유, B-C油, 가스(LPG, LNG)등 기타석유제품의 경우는 버스, 화물차등 대중교통수단과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수출등 국제경쟁력과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당분간

페르시아만사태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연내에 인상하지 않는다.

국내유가 구조조정의 배경과 내역

1. 페르시아만사태가 일어난지 4개월째가 되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제 원유가격이 계속 고유가 수준을 유지하는 긴장세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그동안 다방면에 걸친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석유소비자는 여전히 과소비 현상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는 그동안 국내 유가를 금년말까지 현재와 같이 계속 유지하여 물가를 안정시킬 것인지, 아니면 유가조정을 통하여 과소비현상을 억제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여 왔음.

2. 현재 유가조정 대상 유종은 전체 석유류 수요의 약 80%에 해당하는 B-C油, 경유, LPG, 등유, 휘발유등인데(나머지 20%는 나프타, 아스팔트, 항공유등 자유화 유종임) 이를 분석해 보면,

- B-C油는 主 용도가 산업용 연료로 47%, 발전용으로 28%, 가정산업 부문의 난방용 연료로 14%가 사용되고 있음.

따라서 B-C油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기업의 생산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국제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케 되어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페르시아만사태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연내에 가격을 올리지 않겠음.

- 경유는 53%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철도, 화물차량등 수송부문에 사용되고 있고 22%가 산업용 연료로, 17%가 가정산업용 난방연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역시 유가인상을 하는 경우 버스등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따라서 페르시아만 사태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가능한 한 연말까지 가격을 인상치 않을 방침임.

- LPG 가스의 경우도 52%가 가정산업의 취사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38%가 택시 연료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시 가계부담과 물가안정을 고려 페르시아만사태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연내에 인상치 않을 방침임.

- 또한 LNG의 경우도 그 主 용도가 가정산업의 취사용인 도시가스 24%, 발전용으로 76% 사용되고 있으므로 LPG와 같이 페르시아만 사태 이후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가능한 한 연말까지 가격을 인상치 않을 방침임.

3. 다만,

- 등유의 경우 페르시아만 사태이후 쿠웨이트로부터 수입이 중단되고 특히 9월이후 부터 페르시아만지역의 군사용 수요증가로 인하여 사우디의 등유수출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국제시장에서 등유수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가격도 상대적으로 폭등하였음.

또한 국내에서의 등유소비는 지난해 월동기간 중 83%의 급격한 증가에 이어 올해에도 1~9월기간중 실적을 보면 전년동기 대비 109%의 폭발적인 증가를 하고 있음. 이는 그 주요인이 난방면적 35坪 이상의 中, 大型 주택에서 난방연료를 경유가 아닌 등유 사용을 선호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외곡된 소비형태를 시정키 위하여 여러가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대만큼 현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올 월동기간중 등유 부족이 우려되고 있음.

등유대체 효과가 미흡한 주요 요인중의 하나가 현재의 등·경유 가격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이므로 금번 등유가격을 28%(소비자가격 기준) 인상함으로써 등·경유의 가격차이를 확대하여 대책을 촉진토록 유도하고 월동기간중 등유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 휘발유의 경우에는 '88년 이후 年 30%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비수준이 페르시아만사태 이후에도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올해 1~9월 기간중 실적을 보면 전년동기

대비 31% 이상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과소비 형태는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소비절약 정신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체증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과소비를 억제하고 교통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 가격도 28%(소비자가격 기준) 인상하게 되었음.

- 이번 전체유종의 약 13.5%에 해당하는 등유와 휘발유 두가지 유종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가격구조를 개선하고 구조적인 소비의 왜곡형태를 시정하여 수급

원활화를 기하고자 함.

4. 이와 관련하여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이번 두 유종에 대한 가격조정으로 절감될 유가완충 기금규모는 올 연말까지 약 510억원 수준에 불과 할 것으로 보임.

- 페르시아만사태 이후 10월말까지 유가완충자금으로 지원된 기금규모는 4,179억원이며 향후 '90. 11월~12월중 보전소요는 현재와 같은 국제유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약 4,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렇게 될 경우 연내에 소요될 가격보전액은 총 8,5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임.

〈참 고 1〉

등유 및 휘발유의 가격 조정 내역

1. 유가 조정 내용

(1) 기본 원칙

- 등유의 공장도 가격 인상률은 기준원유가를 18 \$/B→25\$/B 기준으로 하여 조정
- 등유와 휘발유의 소비자 가격은 동률 인상

등유가격 기준 조정

	현 행	조 정	인 상 율
원 유 가	18 \$/B	25 \$/B	33 %
환 율	710원/\$	710원/\$	

(2) 가격 조정

(단위 : 원 / l)

		세전 공장도 가격			소비자 가격		
		현 행	조 정	조정률	현 행	조 정	조정률
등 유		145.20	192.47	33%	186	238	28%
휘발유	보 통	162.63	213.74	31%	373	477	28%
	무 연	171.57	227.19	32%	373	477	28%

2. 물가에 미치는 영향

- 도매물가 : 0.192%P 상승
- 소비자물가 : 0.08%P 상승

〈참 고 2〉

석유사업기금의 조성 및 사용 실적

(1) 석유사업금 조정 및 운용 현황('90. 9월말 현재)

	금액(億원)	비 고
- 石油事業基金 조정 총액	54,675	· 기금 징수 43,456억원 · 운용 수익 11,219억원
- 보 조	3,581	· 도입선 다변화 수송비 보조 · 탄광 대책 지원등
- 투 자	9,630	· 비축시설 건설, 비축유 구입등
- 용 자	21,518	· 유전개발, 에너지利用 合理化, 도시가스 사업등
- 預 託 資 金	18,439	· 유가 완충용
· 財 特 預 託	13,000	
· 金 融 預 託	4,239	· 産銀, 外銀, 企銀
· '90 運用計劃 반영분	1,200	
- '90年 事業 未執行 資金	1,507	

(2) '90년 유가완충 자원 확보 현황 및 사용실적

(1) '90년 유가완충 자원 확보 현황

(단위 : 억원)

'90 기금 자원	금융 예탁	재특 예탁 인 출	소 계	비수기중 기금유보	합 계
1,200	4,239	2,000	7,439	920	8,359

(2) 유가 완충 자금 사용 현황

기 간	금 액	비 고
'90. 8. 2~ 9. 14	920억원	비수기 기금징수 유보분으로 상계처리
'90. 9. 15~ 9. 30	749억원	이미 지급 완료
'90. 10. 1~10. 31	2,510억원	'90. 12月中 지급 예정
計	4,179억원	

〈참 고 3〉

월동기 등유수급안정 대책

1. 월동기 등유수급 현황

- 금년도 월동기 등유 수요는 작년 대비 65% 늘어

난 2,535萬배럴로서 이중 89% (2,268萬배럴)는 기 확보된 상태이며, 나머지 11%(267萬배럴)는 확보방안을 강구중임.

-올해 12월말까지는 등유수급에 문제가 없으며,

'91년 1~3월중 예상되는 부족분은 추가수입 확보와 함께 강력한 등유 소비 억제로 대처토록 함.

월동기 등유 수급 계획

(단위 : 萬배럴)

	등 질 기	1990. 10~12	1991. 1~3
수 요	2,535	1,104	1,431
확 보	2,268	1,104	1,164
생산 기수입 확보 정부비축 精油社 재고	1,183	552	631
	638	618	20
	71	-	71
	376	(△66)	442
		(재고증가)	
過 不 足	△267	-	△267

2. 월동기 등유 수급 안정 대책

- 등유의 수입가격과 국내가격과의 차이를 석유사업 기금에서 보전 실시('90. 9. 15)
 - '90. 9~10月中 등유 보전 금액 : 464억원('90. 9월 141억원, 10월 323억원)
- 정유사별 등유의 책임 공급 의무 부과('90. 9. 29)
 - 등유의 최대생산 체계 유지

-부족물량 확보 의무 부과

- 수요 억제 대책 추진
 - 등·경유 겸용 보일러에 경유 사용을 위한 행정 지도 및 홍보 강화
 - 금년 월동기중 등유 보일러의 KS 허가 및 형식 승인 유보
 - 단독주택에 유조차에 의한 등유 배달 금지
 - 석유판매업자의 등유 판매 기록관리 의무화

<참 고 4>

등유, 휘발유 가격 인상의 파급 효과

1. 등유, 휘발유의 국제가 비교

(단위 : \$ / B)

	韓 國	日 本	臺 灣	西 獨	美 國	
휘발유	조정 전	92.4 (100)	174.7 (212)	103.8 (126)	139.6 (169)	52.1 (63)
	조정 후	105.3 (100)	(166)	(99)	(133)	(49)
등 유	조정 전	41.1 (100)	78.1 (190)	80.1 (195)	-	-
	조정 후	52.6 (100)	(148)	(152)	-	-

* ()은 우리나라 지수를 100으로 볼때의 지수

2. 금번 가격인상에 따른 소비자의 추가 부담

• 휘발유 소비자의 추가 부담액

	현 행	조 정	차 이
월 담당액*	93,250원	119,250원	26,000원

* 주행연비 12km / l, 하루 100km 운행 기준

• 등유 소비자의 월동기중 난방비

	현 행	조 정	차 이
등 유	223,200원	285,600원	62,400원
경 유	218,400원	218,400원	
차 이	4,800원	67,200원	62,400원

* 월동기간 6드림(1.2kl) 사용 기준

3. 등유, 휘발유 가격 인상의 석유사업기금 영향

- 등유와 휘발유가 국내 전체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등유 6.6%, 휘발유 6.9%로서 도합 13.5%를 점하고 있는 바, 이번 등유, 휘발유의 가격 인상이 전체 유종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음.
- 이에 따라 석유사업기금 보전액은 매월 510억원 절감

(1) 소비절약 기대 효과

- 휘발유 : 이번 가격 인상에 따라 월동기중 휘발유 소비의 약 17%에 해당하는 2.3백만배럴의 수요감축 효과 기대(에너지경제연구원)
- 등 유 : 이번 가격 인상에 따라 월동기중 등유수요의 약 14%에 해당하는 3.5백만배럴이 경유로 대체될 것으로 기대

4. 금번 조치에 따른 소비절약 기대 효과

(2) 국제수지 개선 효과('90 월동기기준)

	휘발유 수입 감소	등유의 경유 대체	계
백만달러	90	35	125

5. 페르시아만사태 이후 주요국의 유가 조정 사례

[日 本]

자유시장가격으로 2차에 걸쳐 소비자가격기준 15푼 / l 인상(「매월가격조정방식」 채택)

-1차인상(9.17) : 휘발유 7.3%, 등유 20.6%, 경유 15.1%

-2차인상(10.20) : 휘발유 11.3%, 등유 30.7%, 경유 20.5%, B-C油 13.0%

[臺 湾]

정부통제가격으로 8월 24일 소비자가격기준 평균 27% 인상

-8월 24일 : 휘발유 29.6%, 등유 28.6%, 경유 30% 인상

[프랑스]

자유시장가격으로 점차적, 점진적 가격인상

-9월말현재 : 휘발유 15.6%, 경유 20.6%, B-C油 50.7% 인상

[英 國]

-9월말현재 : 휘발유 18.1%, 경유 17.5%, B-C

油 41.3% 인상

[西 獨]

-9월말현재 : 휘발유 16.0%, 경유 17.7%, B-C

油 38.1% 인상

[美 國]

-10월 18日 현재 : 휘발유 47.8%, 경유 68.6% 인상

우리나라의 주요국의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비교

(단위 : \$ / B)

	韓國(인상후)	日本(10월말)	臺灣(10월말)
휘 발 유	105.3 (100)	174.7 (166)	103.8 (99)
등 유	52.6 (100)	78.1 (148)	80.1 (152)

* () 내는 우리나라를 100으로 본 지수입, 환율 720원 / \$기준

성인병을 이기자

현대사회에서 늘어나는 각종 만성질환과 성인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을까?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식 건강식의 올바른 섭취법을 익혀둔다면 건강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현미식

현미의 씨는 혈액성장의 이상을 바로잡아 정상으로 만들어 주고 혈관, 심장계통의 강화와 개선에 유효하다.

• 초 란

계란을 식초에 절인 초란의 주성분은 알칼리성으로 고혈압, 동맥경화에 좋다. 하루에 세번, 작은 소주잔으로 1잔씩 마신다.

만드는법 : ① 계란을 깨끗이 씻어 껍질째 식초병에 넣고 양초로 밀봉, 냉장보관한다. ② 3~4일 후 계란껍질이 흐물흐물해지면 껍질은 건져내고 잘저어 마신다.

• 울 무

암의 예방과 치료에 특효, 피부미용, 구취제거에도 효과가 있다. 암환자는 현미 6, 울무2, 검정콩1, 팔1의 비율로 미음죽, 밥을 만들어 소량을 서서히 먹도록 한다.

• 연뿌리

연뿌리의 섬유질은 심장병, 고혈압에 좋다. 위궤양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빈혈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 당근즙

식초에 당근과 사과를 함께 갈아 즙을 낸 당근즙은 허약 체질, 회복기의 환자에 큰 효과가 있다. 또 피로한 눈, 야맹증에도 권할만 하다.

• 버섯

암환자의 식이요법 식품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과학회의에서도 이상적인 미래식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 부추즙

감기에방과 위장을 튼튼히 하는 효과가 있고 혈액을 깨끗이 하며, 냉증 치료에도 좋다.

• 호박

중풍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고 특히 동짓날에 먹는 호박이 약효가 있다고 한다. 호박씨에는 혈압을 낮추는 효소가 들어 있다.